

#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속 '면허 반납' 제자리

### 작년 교통사고 중 70세 이상 비율 광주 9.5%·전남 22.8% 전남 최근 3년 반납률 2%대... "이동 불편 해소 방안 절실"

광주·전남 고령 운전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이동권 불편 해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최근 3년 2020년 12만9천370명, 2021년 13만7천648명, 2022년 14만8천365명으로 매년 1만여명씩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70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고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지역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2020년 7.8% (7천718건 중 607건), 2021년 8.3% (7천543건 중 6

32건), 2022년 9.5% (7천122건 중 680건)로 해마다 1%가량 늘고 있다.

전남은 고령인구가 많은 만큼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3년 전남지역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0년 19.9% (9천816건 중 1천957건), 2021년 21.9% (8천685건 중 1천910건), 2022년 22.8% (8천335건 중 1천905건)로 사고 10건 중 2건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20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65세 이상)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광주·전남도 지난 2019년부터 반납 나이를 만 70세로 정하고 예산 확보와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는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선 지급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전남은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20~5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상은 일회성인 데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이 이동 권리를 포기할 만큼의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해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전남지역 고령자 면허 반납률 평균은 2.84%에 그치고 있고

광주경찰청은 시행연도부터 2021년까지 반납 데이터 자체가 없다. 다만, 지난해 반납률은 11.7%라고 광주경찰청은 밝혔다.

목포시 용해동에 거주하는 김현숙(64·여)씨는 "몇 십년간 운전해온 사람들이 교통카드 하나 준다고 면허를 반납하겠느냐"며 "이동수단에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마련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해외 국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전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운전 가능한 장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정부도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류혜정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광주·전남은 도서 및 외곽지역에서 운전면허 반납 시 이동이 불편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면허 반납 후 이동권 불편 문제가 해소되면 반납률이 높아지고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도로에 물 뿌리는 살수차.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인 14일 북구청 기후환경과 직원들이 살수차를 이용, 물을 뿌리며 용봉동 일대에서 아스팔트 열을 식히고 있다. <광주북구청 제공>

##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횡수 제한 폐지

### 현재 광주 동·서구 5회, 남구 3회...한달간 제도 권익위·행안부 "인도 주정차 '안전신문고'에 신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횡수 제한'이 다음달 1일부터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개선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공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1~31일 한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각 지자체마다 다른 시행 규칙과 횡수 제한 등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업무 과다와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 동구와 서구는 5회, 남구는 3회로 불법주정차 1일 신고 횡수를 제한해왔다.

이에 권익위와 행안부는 민원 사례 분석부터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개선된 신고제도는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화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지역을 '인도'를 포함한 8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별로 1~3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한다.

이상돈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사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근절될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충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복기 기자

## 국내서 자국 민주화운동 주도 캄보디아인, 난민 지위 '인정'

### 광주지법 "본국 소환편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근거 충분"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국 민주화운동을 위해 투쟁한 캄보디아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심판부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2020년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A씨는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국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시작했

다. 2019년에는 해산 정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청년운동 대표부 회장으로 선출돼 국내에서 본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주동적으로 개최했다.

이와 관련, 캄보디아 법원은 해외 C NRP 활동가 68명에 대해 반역·선동 등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고 A씨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이 본국에 돌아가면 체포나 형사처벌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 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출입국사무소는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냈던 이의 신청까지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 부장판사는 "원고의 정치활동은 본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었다"며 "원고가 캄보디아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오복기 기자

## 남해안 백상아리 출몰... '안전주의' 요구

남해 소안도 비자리 해안가에서 백상아리 사체가 발견돼 어민과 여름철 레저객들의 안전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8분께 1급 연안복합 어선 선장인 A씨는 소안도 비자리 해안가에서 길이 1m50cm, 무게 약 4kg의 백상아리 사체(사진)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먹이생물 변화 등으로 인해 백상아리 출몰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피서철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상어를 만났을

때에는 고함을 지르거나 작살로 찌르는 자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발견된 백상아리 사체는 연구 목적으로 군산대학교가 인수할 예정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투자했다 수십억 날려" 건설사 고소

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주 3명의 고소인이 광주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해당 업체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고,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인들은 해당 업체에 수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봤으며 계좌 이력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복기 기자

##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상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기기인증

주요기능: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무작심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플 LS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무작심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